

다산포럼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의 시



김정남 언론인

시인 아도르노는 나치가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독살한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서정시를 쓸 수 없는 까닭을 이렇게 고백했다.

“나의 시에 운을 맞춘다면 그것은/ 내게 오만처럼 생각된다./ 꽃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과/ 엉터리 화가에 대한 경악이/ 나의 가슴속에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바로 두 번째 것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한다.”

어쨌든 나치 독일 시대뿐이라. 우리들의 1970년대, 80년대도 바로 그런 시대였다. 문학평론을 하는 유종호는 이러한 시대에 쓰여지는 서정시란 ‘고약한 생존의 치욕에 대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암울

한 현실을 애써 모른 척하고, 압제자에 맞서 두 눈 부릅뜨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싸우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18일로 한국작가회의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1974년 그날 오전 9시 50분, 광화문 비라 뒤 의사회관(당시 대한협회 사무실이 있던 건물) 계단에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이름으로 ‘문학인 101인 선언’이 발표됐다.

한국작가회의가 탄생할 이 무렵은 긴급조치하의 유신시대였고 문학의 수난시대였다. 문학인의 창작 자제를 사실 왜곡으로 몰아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가두고 법정에 세우던 시절이었다.

법정에서는 때아닌 문학쟁쟁이 벌어지게 했는데, 그때 김지하, 양성우, 김영식, 송기숙 등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고 또 변론요지서를 숨죽여 쓰던 기억이 새롭다. 한국작가회의는 이처럼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탄생하였다.

1975년 4월 11일, 서울농대 축산과 4학년이었던 김상진이 학내 시국성토포대회에서 자신의 양심선언을 발표하면서 활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71년 전대일에 이은 정렬한 죽음이었다. 그 죽음은 민주

화의 길이 목숨을 건 투쟁이어야 한다는 것을 예시하는 사건이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양심선언을 읽어 나가다가 활복하는데, 나는 그 때의 그 비장하고 처절했던 과정을 이신범이 구해온 녹음을 통해 들었다.

김상진은 4월 12일 오전 8시 55분쯤 서울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의 달경거리는 침대 위에서 영면했다. 당연히 김상진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전국으로 번졌고, 대학가 곳곳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그 해 4월 30일 베트남이 패망하자 박정희 유신정권은 관제 안보결기대회를 여는 등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5월 13일에는 긴급조치 9호를 발동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여러 긴급조치 내용들을 종합편성한 결정판이었다. 이 긴급조치가 발동된 지 9일 만에 그에 정면으로 맞서 터뜨리고 나온 것이 서울대의 ‘오들들(5월 22일)’사건이었다.

이날, 서울대에서는 ‘김상진 열사 장례 집회 있음’이라는 쪽지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순식간에 1000명이 모였다. 그러나 이 집회는 상당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

김근태와 신동수가 신경림을 찾아와 이 집회에 쓸 조시(弔詩)를 부탁했고, 신

경림은 ‘곡(哭) 김상진’이라는 시를 써줬다. 이 시는 집회 당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서울대학교 학우 일동의 이름으로 뿌려졌다. 이 집회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매우 컸다. 김근태와 신동수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몸이 되었다.

40여 년을 끌고 다니던 내 보따리 속에서 그때 그 유인물이 나왔다. 원작자인 신경림에게도 없는 잃어버린 시를 찾아낸 것이다. 신경림의 그 잃어버렸던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네 목소리는 바람이 되었다./ 어둠으로 덮인 온 나라의/ 강과 산과 마을을 누비며/ 짐승처럼 서럽게 울부짖고 있다/ 네가 흘린 피는 꽃이 되었다/ 말라 죽은 나 못가지 위에 골목 전류탑에/ 숨죽인 우리들의 팔뚝 위에/ 불뚝불뚝 일어나는 숨결이 되었다/...

민주주의여, 아아, 자유여 정의여/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도/ 그렇다. 세월이 왔구나 친구여/ 너의 죽음으로/ 잘린 우리들의 혀가 되살아나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울리는/ 저 우렁찬 목소리로/ 막힌 우리들의 두 귀가 뚫리리라/ 눈 앞을 막은 안개가 걷히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

기고

찰스 랭글 의원을 나주배 홍보대사로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지난달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한국식품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많은 내빈 중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의원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찰스 랭글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친한파다. 미국 뉴욕주의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최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87.4%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하여 23선 고지를 넘었다. 찰스 랭글 의원은 6.25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이며 한국을 잘 알고 있다. 배, 김치, 김 등 한국 농산품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한국산 배를 칭찬하였다. 맛과 당도가 뛰어나다고 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손녀가 한국산 배를 좋아한다고 했다. 손녀가 할아버지보다 한국 배

를 더 좋아해서 배를 먹으러 집에 자주 놀러올 정도라고 한다. 한국 농산물과 한국을 좋아하는 미국 정치원로의 함박웃음에서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푸근한 정서를 느꼈다.

지난 11월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 처리도 임박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전체 이익과 미래를 위하여 글로벌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본격적인 개방화로 이어지고 불가피하게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업분야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개방에 따른 피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좌절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개방화를 통해 우리의 수출시장도 넓어진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이미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의 원전 사태 이후 한국산 농산품을 찾는 나라도 늘어난다. 한국 농산품이 가진 건강기능성을 강조하는 고급상품을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안전화?고급화’ 이미지를 우리 농산품에 심어준다면 글로벌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우리 농산품을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생산 기반 확보, 품질향상, 판매촉진, 홍보 마케팅 강화, 매뉴 개발, 포장개선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판매 위주의 단순 홍보판촉 행사를 넘어 문화와 접목한 ‘K-Food Fair’ 행사를 뉴욕, 상하이 등 해외 대도시 중심가에서 개최했다. 교민 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현지인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도 추진했다. 김스내 등 신상품 개발, 미국 요리학교(CIA) 등 해외 유명요리학교와의 공동 매뉴 개발, 한국 농산품을 활용한 레시피 보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 중국 등 전통적인 주요 수출 상대국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유럽 등지로 수출시장도 다변화하고 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면 전세계가 우리 농식품 시장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정책 홍보를 위해 연연히 홍보대사를 활용해 왔다. 김배우 등 한류스타가 홍보대사로 많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해외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기인보다는 해외 현지인을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발상을 전환하여 찰스 랭글

의원처럼 한국 농산품을 잘 알고 좋아하는 현지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 배를 좋아하고 즐겨 먹는 찰스 랭글 의원이 나주 배 홍보대사를 맡는 것도 배 수출증대를 위한 좋은 전략이다.

aT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으로 광주전남 지역 농식품 수출도 활기를 띠 것이다. 전라남도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도이다. 나주 배, 담양 딸기, 고흥 유자, 구례 산수유 등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농산물이 즐비하다. 지난해 전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은 3억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더 큰 성장을 기대해본다.

우리 스타일의 노래나 영화, 드라마가 세계인 취향에 맞아 ‘한류 열풍’을 불러 일으키는 우리 스타일의 음식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액은 80억 달러 수준으로 조만간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농식품 수출이 100억 달러 고지를 넘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농식품 수출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aT와 함께 광주전남이 희망과 비전을 있는 새로운 ‘수출농업시대’를 열어가자.

NGO 칼럼

모두의 수능에서 어떤 이들의 수능으로



강경필 교육공간 오름 대표교사

교육공간 오름은 도시 안에서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과 같이 철학, 역사, 사회, 문학, 음악, 영화, 연극 등의 공부를 하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나왔지만 여전히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부가 다음 과정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한국의 현실 속에서 저희가 하는 공부에 대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저희가 같이 하는 공부에 대해 의아함을 표하는 이유입니다. 공부는 그 자체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후 주어지는 졸업장이나 여타의 인정을 공부한 내용에 대한 작은 증표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범위는 넓어지고, 주변의 누군가를 오래 관찰한 경험은 줄어들어 가고,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지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이 단칼에 평가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커졌을 때 공부도 본연의 기능을 잃고 저열한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변질하여버립니다. 숭고한 공부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만 여전히 사방에서 공부해서 대학을 가라는 소리는 들려옵니다. 대학 입시 공부에 대한 맹목에 빠진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교육공간 오름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로 고민하는 순간이 오면 선생으로서의 참 곤혹스럽습니다. 오름의 학생들도 입시 문제로 고민하고, 또 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19세 무렵에 수능 시험을 접수합니다. 겉에서 지켜보는 선생으로서 대학 진학

에 무조건 찬성할 수도 또 말릴 수도 없는 마음이 들어 어렵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엔 한 학생이 소신껏 자신은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수능시험에 접수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수능도 보지 않고 대학에도 가지 않기로 결심한 이 학생에게 19세의 겨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능 잘 보라는 수많은 격려의 문자와 떡과 초콜릿 선물이 왔습니다. 빗나간 응원이 되려 이 친구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 길의 초입부터 절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공간 오름과 학벌 없는 사회는 이 학생처럼 입시를 거부하고 외롭게 보내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작은 콘서트를 작년 수능 날 저녁에 열었습니다.

이 학생을 계기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종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소식으로 뉴스가 도배되던 수능 날 저녁 총장로 거리에서 ‘투명가방’과 입시희생자들을 위한 희망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광주의 많은 인디 음악가들이 행사의 취지에 공감해서 흔쾌히 응원 및 추모의 의미를 담아

노래해주었습니다. 대학에 가서 보냈던 무의미한 시간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대학을 거부하는 삶을 응원했습니다. 대학 때문에 돌음 길을 가야했고, 또 그 돌음 길의 대가로 학자극 대출에 따른 빚을 지고 살아야하는 이야기들이 콘서트 중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에게 대학은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아닌 어떤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이미 대학이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한 곳이 아니라 무의미한 고통의 공간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대학은 꼭 가야지’라는 말을 무슨 고답준론처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그리고 자기 주변을 성의없이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군가에 따라 충고의 내용은 달라져야 하고, 응원의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이 있음을 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편견에 시달릴 대학 거부자들을 응원합니다.

19세의 겨울이 모두 동일한 고민으로 얼룩지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논란만 키우다 되돌아온 도시철도 2호선

민선 6기 출범 이후 광주 지역사회의 갈등과 논란의 중심이 된 도시철도 2호선이 원안대로 건설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윤창현 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뜻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을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시 재정 투입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재정이 어렵더라도 공익과 복지, 사회 인프라 차원에서 건설을 요구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윤 시장의 재검토 지시로 시작된 2호선 논란이 5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윤 시장이 애초 의도와는 달리 건설 쪽으로 선회한 것은 그가 언급한 대로 지하철 건설이 대표적 교통복지이자 공공재로서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더 우세해 이를 뒤집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었다는 점이다. 또 정치적 지지기반인 지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부정적 기류를 나타낸데다 절반이 넘는 시의원

들의 공개적인 압박도 큰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년 이상 절차를 진행해온 중요 현안에 대해 성급하게 재검토를 지시, 6개월 가까이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검토로 촉발된 논란은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원안을 촉구하는 지역구 정치인·건설단체 등 간도 갈등 양상마저 빚었다.

결과적으로 2호선 문제는 판단 미숙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추락과 행정력 낭비, 단체장의 리더십 실추 등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새겨야 할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윤 시장이 이날 밝힌 대로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저상도 개발에 대한 노선 총실행, 안전 확보 등 명품 도시철도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추락한 신뢰 회복은 완벽한 추진과 건설에 달려 있는 것이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성공시키려면

광주시 민선 6기 최대 역점 시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따라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사업이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회의에서 2014년 하반기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예타 조사란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가 없는지 사전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 전 단계에 조사대상을 미리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는 오는 2020년까지 빛그린 및 진곡산단에 8347억 원(국비 5865억 원, 시비 1833억 원, 민자 649억 원)을 투입, 자동차 전용 임대 국가산단을 만들어 미래형 자동차 핵심부품 등을 생산할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1조3500억 원의 생산과 4100억 원의 부가가치, 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그만큼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꼭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타 조사 대상 선정은 단지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일 뿐이다. 사업이 확정되고 제대로 추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게다가 타 지역 지자체들까지 자동차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성사업은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광주시와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꼼꼼한 준비를 하는 한편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선 시는 예타 조사에 대비해 적절한 테스크포스 팀을 꾸려야 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 사업 타당성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無等鼓

영국 엘리자베스 1세가 가장 사랑한 신하는 윌터 롤리였다. 영국 남서부 출신의 시골뜨기인 롤리가 여왕의 총애를 받은데는 뛰어난 언변과 기사도적인 행동에 있었다.

롤리는 16세 때인 1581년 아일랜드 먼스터지방의 식민지 반란 평정에 참가해 이름을 얻은 후 런던에 돌아와 식민지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진언하면서 여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롤리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 “나의 오랜 인생 행로는/ 허영의 삶이었다/ 나는 탐험가이자 군인이었고/ 거기다 아첨꾼이었다/ 그리고 하찮은 것에 유혹 당해/ 좋은 마음씨를 기질 수 없었으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명예의 등용문에 오른 롤리는 16세 때인 1581년 아일랜드 먼스터지방의 식민지 반란 평정에 참가해 이름을 얻은 후 런던에 돌아와 식민지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진언하면서 여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롤리는 16세 때인 1581년 아일랜드 먼스터지방의 식민지 반란 평정에 참가해 이름을 얻은 후 런던에 돌아와 식민지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진언하면서 여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문제는 너무 거만해 적이 많았다는 점이었다. 1603년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등극하자 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런던탑에 13년간 갇히고 만다. 기아나 원정을 조건으로 풀려나 재기를 노렸지만 원정에 실패하면서 66세에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

롤리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 “나의 오랜 인생 행로는/ 허영의 삶이었다/ 나는 탐험가이자 군인이었고/ 거기다 아첨꾼이었다/ 그리고 하찮은 것에 유혹 당해/ 좋은 마음씨를 기질 수 없었으며/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명예의 등용문에 오른 롤리는 16세 때인 1581년 아일랜드 먼스터지방의 식민지 반란 평정에 참가해 이름을 얻은 후 런던에 돌아와 식민지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진언하면서 여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측근 인사가 정기적으로 청와대 비서관 등을 만나 국정현안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중국 후한 말 여인 황제를 둘러싸고 국정을 농단한 10명의 환관에 빗대 ‘십상시(十常侍 모임)’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비서실장은 실세에게 잘보이기 위해 남작 없드려다 못해 카펫을 깔았다더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

카펫공작은 그레도 역사에 이름이라 도 남겼다. 유럽에 감자와 담배를 전파했고, 그를 기리는 술이 명주로 대접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십상시는 무엇을 남길까. 아찔하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